

• 타운뉴스 칼럼

아들

인창해
타운뉴스 발행인



지난 3월 하순 보스턴에 살던 막내아들이 집으로 돌아왔다. 코로나 19 때문에 재택 근무하게 되어 굳이 따로 나가 살 필요가 없다고 했다. 대학 진학과 함께 완전히 곁을 떠난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왔으니 어찌 기쁘지 않을쏘나. 그의 목소리만 들려도 좋았다. 신이 났다. 날마다 아들이 좋아하는 콩나물국, 김치찌개, 닭볶음탕, 미역국, 조기구이, 갈비구이, 불고기 등을 해주며 힘든 줄 몰랐다. 나의 요리 솜씨가 눈부시게 발전되어 갔고 아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웠다.

그런데 다섯 달을 넘어서면서부터 슬슬 '이게 아닌데, 무언가 잘못되었다' 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아들은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렸다. 처음에는 제 방에서 일했다. 한 주일쯤 지나서 방이 너무 어둡다고 옆방으로 옮겼다. 또한 주일 지나서는 - 두 방을 모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후- 답답하다며 아래층 거실에 커다란 테이블을 펴놓고 온갖 것을 다 늘어놓았다. 잠도 이방 저 방 왔다 갔다 하면서 자고 있다.

아들은 문을 잠그지 않고 나다녔다. 하루에 몇 번씩 운동한답시고 드나들면서 문을 잠그지 않았다. 사람이 집안에 있다면 관찰지만 아무도 없을 때는 문을 꼭 잠그고 다니라 해도 그때뿐이었다. 아무리 얘기해도 시정되지 않기에 더 이상 문 잠그는 일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먹는 일에도 신경이 쓰인다. 하루 세끼를 배불리 먹고도 끼니 사이사이에는 각종 칩이나 견과류, 팝콘 등으로 주전부리도 자주한다. 그걸 탓하자는 게 아니다. 문제는 다 먹고 나서 그릇은 물론 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조차 치우지 않는데 있다. 몇 번 잔소리 했더니 음식을 담았던 그릇을 싱크대에 갖다 놓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설거지를 한 적이 없다. 늘 내가 하고 있다. 여기까지도 견딜 만하다.

언젠가부터 집안에서 마주치게 되면 아들이 나를 툭툭 치기 시작했다. 배도 툭 치고 엉덩이도 툭 건드리고 제 친구들과 만났을 때 하는 짓을 아빠에게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 했다. 처음에는 아빠에게 그러지 말라고 했으나 녀석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나를 치고 다녔다. 아빠가 아니라 제 친구쯤으로 여기는 듯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이기로 했다.

아들은 샤워를 시도 때도 없이 한다. 하루에 서너 번 이상 샤워를 한다. 대머리 한 하는 날도 있다. 그렇다고 자주 씻는다면 뭐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신경이 쓰이는 일은 또 있다. 아들은 낮이고 밤이고 집안의 불이

란 불은 모두 켜놓고 다닌다. 환한 대낮에도 천장에 달린 전등은 물론이고 스탠드까지 켜놓고 일한다. 게다가 화상 미팅할 때 빼고는 하루 종일 음악을 커다랗게 틀어 놓고 있어 온 집안이 시끄럽다. 머리가 빙빙 돌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부모집이 그리워 찾아온 아이에게 대놓고 뭐라 하기도 힘들고, 이래저래 아들 눈치보고 사는 신세가 되었다.

아들과 생활하면서 수년 전 대학 진학을 위해 집을 떠날 때의 그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떤 때는 아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나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그럴 때면 아들은 나를 향해 '컴다운' 이란 말을 반복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왜 자기에게 옐링 하나며 아들도 언성을 높였다. 아빠라고 해서 봐줄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나선 것이다. 그날 이후로는 가능한 한 아들과의 언쟁을 의식적으로 피했다. 가능한 한 부드럽게 이야기했고 웃는 낯을 짓기 위해 노력했다. 아들도 전보다 한결 편하게 대했다.

7월 하순 어느 날 늘 두는 곳에 자동차 열쇠를 놓으려는데 못 보던 봉투가 보였다. 무심코 봉투를 열어보니 제법 많은 돈이 들어 있었다. 이게 무슨 돈인가 물으니 아들이 한 달 치 숙식비라며 앞으로는 매달 내겠다고 했다.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숙식비냐고 돌려주려 하니 손사래를 쳤다. 살던 아파트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아파트 렌트비를 더 이상 낼 필요가 없어졌다면서 그 대신 이제부터는 매달 숙식비를 내겠다고 했다.

'품안의 자식' 이란 말이 있다. 어린 자식이 부모의 뜻을 따라 생활한다는 뜻이다. 그런 자식이 예쁘고 귀하지 않을 부모는 없다. 하지만 자식이 영원히 부모의 품안에 있기를 바랄 수는 없다. 자식이 성장해서 부모의 품을 떠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제 아들을 무조건 내 뜻을 따라주는 종속적인 존재가 아닌 동등한 독립적 인격체로 인정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지난 3월 코로나 19 사태가 시작됐을 때, 사람들은 서너 달쯤 지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6개월이나 지난 지금도 사태가 진정될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 되더라도 세상은 그 이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마치 아들이 아빠의 아들에서 아빠의 친구로 자리 잡은 것처럼.

chahn@townnewsusa.com

타운뉴스



제 1333호 목차

타운뉴스 칼럼 11

커뮤니티 소식 13,15

IT·과학 14,29

전문인 칼럼 16,25,36

법률 19

여행 21

나는야 1.5세 아줌마 23

숨은그림 찾기,답/날말 퀴즈,답 24,45

지금 서울에서는 27

업소탐방 30

함께 생각 31

깔깔 34

부동산/경제 35

한인업소 안내지도 40,42,52,54,56

요리 41

그림여행 43

연예 45,47

중고차, 안내광고 48,49

Domestic/ 주간운세 50

여성 53,55

기주장익시

매장·화장·묘지주선·이장·장례보험등

- 넓은 주차장 • 교통 편리 (LA, OC-20분)
- 저렴한 비용으로 봉사하여 드립니다.

24시간 대표: 정영목 목사
9830 Lakewood Blvd., Downey, CA 90240
TEL (562)622-9393

타운뉴스® 배포지역

- 로스앤젤레스, 세리토스, 아테시아
- 하시엔다, 로렌하이츠, 다이아몬드 바 등 LA 동부
- 오렌지카운티 전지역
- 가디나, 토랜스

광고문의 562.404.0027
info@townnewsusa.com

www.townnewsusa.com

Keon-Jung Kim Dental Corp.

IMPLANT, COSMETIC, ORTHODONTIC & LASER DENTISTRY ORAL SURGERY

평생 치아 건강을 맡길수 있는
35년 임상경험의 치아이식 전문의와의 만남...

일반·미용치과 전문

Jeon Hara, DDS, MS, Ph.D
Jeong Eun Kim, DDS
Soyoun Jenny Min, DDS
Maria Capiral, DDS

- 3차원 CT촬영으로 정확한 진단과 수술
- Surgical Microscope을 이용한 섬세한 외과수술 및 동영상 촬영
- 레이저를 통한 무마취·무출혈·무통 잇몸치료

교정치과 전문

Jin Kim, DDS, MS
Columbia 명문대 졸업
미국 board certified orthodontist
(미국 교정치과 보드 전문의)

Medicare B plan (PPO) provider
Health care(PPO) 취급하여
→ 뼈이식과 Implant 할인 혜택 가능



New Address

2492 Walnut Ave. #200, Tustin, CA 92780
949.679.6000 / (San Diego) 760.479.9876
www.timkimdental.com

터스틴 김건중 종합치과 이전 개원

NEW LOCATION TO BETTER SERVE YOUR DENTAL NEED

KEON-JUNG 'TIMOTHY' KIM
구강외과/치아이식 수술전문 ORAL SURGERY
D.D.S., M.S.D., Ph.D.

- 대한 구강악안면 외과 board certified specialist
- 인천 중앙 길병원 치과 구강외과 주임과장 역임
- 대한 구강악안면 상형재건외과학회 지도의 역임
- LSU 치대 구강악안면외과 Postgraduate Fellow 역임
- LSU 치대 구강악안면외과 조교수 역임
- New Orleans Charity Hospital 구강외과, 치아이식과 임상과장
- 미 치아이식학회 (AAID, AO)회원
- ADA, CDA, OODS, KADA 회원